

SPECIAL ISSU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1):1-5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 세월호 사고 직후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의 초기 지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의 자원 봉사 활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1</sup>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sup>2</sup>  
국립서울병원 심리적 외상관리팀 정신재활치료과,<sup>3</sup>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sup>4</sup>  
마음드림의원,<sup>5</sup> CHA의과대학정신건강의학교실,<sup>6</sup>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sup>7</sup>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8</sup>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9</sup>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을지대학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sup>10</sup>  
가천의과대학정신건강의학교실,<sup>11</sup>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sup>12</sup>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sup>13</sup>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sup>14</sup>

백종우<sup>1,14</sup> · 김현수<sup>2,14</sup> · 심민영<sup>3,14</sup> · 이해국<sup>4,14</sup> · 우영섭<sup>4,14</sup> · 정찬승<sup>5,14</sup> ·  
이상혁<sup>6,14</sup> · 석정호<sup>7,14</sup> · 전홍진<sup>8,14</sup> · 이상민<sup>9,14</sup> · 방수영<sup>10,14</sup> · 나경세<sup>11,14</sup> ·  
이병철<sup>12,14</sup> · 이명수<sup>13,14</sup> · 허휴정<sup>4,14</sup> · 채정호<sup>4,14</sup>

## The Sewol Ferry Accident and Early Mental Health Care Response by Volunteer Activities of Korean Disaster Mental Health Committee and Members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Jong-Woo Paik, MD, PhD<sup>1,14</sup>, Hyun-Soo Kim, MD<sup>2,14</sup>,  
Minyoung Sim, MD, PhD<sup>3,14</sup>, Hae-Kook Lee, MD, PhD<sup>4,14</sup>,  
Young Sup Woo, MD, PhD<sup>4,14</sup>, Chanseung Chung, MD, PhD<sup>5,14</sup>,  
Sang-Hyuk Lee, MD, PhD<sup>6,14</sup>, Jeong-Ho Seok, MD, PhD<sup>7,14</sup>,  
Hong Jin Jeon, MD, PhD<sup>8,14</sup>, Sang-Min Lee, MD, PhD<sup>9,14</sup>,  
Soo-Young Bang, MD, MPH, PhD<sup>10,14</sup>, Kyoung-Sae Na, MD<sup>11,14</sup>,  
Boung Chul Lee, MD, PhD<sup>12,14</sup>, Myung-Soo Lee, MD, MPH<sup>13,14</sup>,  
Hyu Jung Huh, MD<sup>4,14</sup>, and Jeong-Ho Chae, MD, PhD<sup>4,14</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sup>2</sup>Department of Psychiatry, Myongji Hospital, Goyang, Korea

<sup>3</sup>Psychological Trauma Center, Department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Korea

<sup>4</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sup>5</sup>Maum Dream Clinic, Seoul, Korea

<sup>6</sup>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CHA University, Seoul, Korea

<sup>7</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sup>8</sup>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School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sup>9</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sup>10</sup>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ulji General Hospital,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sup>11</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Gachon University, Incheon, Korea

<sup>12</sup>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sup>13</sup>Seoul Mental Health Center, Seoul, Korea

<sup>14</sup>Korean Disaster & Trauma Mental Health Committee, Seoul, Korea

Received January 29, 2015

Revised January 30, 2015

Accepted February 3, 2015

###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ong-Ho Cha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6083  
Fax +82-2-594-3870  
E-mail alberto@catholic.ac.kr

On 16 April 2014, the Sewol ferry, carrying 476 people, sank in the ocean off the south coast of South Korea. Two hundred and ninety five are confirmed dead and 9 remain missing.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set up a Disaster Mental Health Committee (KDMHC) for out-

reach services and to provide general strategie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resilience. Members of KDMHC and Volunteering Psychiatrists of the KNPA had participated in disaster mental health services organized by Gyeonggi-Ansan disaster mental health support team. Their activities were composed of psychoeducation, supportive individual and familial counseling and referring service to professional institutes. This report has described the outline of the initial and acute mental health care responses by KDMHC and volunteers among KNPA member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1):1-5

**KEY WORDS** Sewol ferry accident · Disaster mental health ·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Disaster Mental Health Committee.

## 서 론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 9명을 합치면 304명의 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172명은 다행히도 구조되었으나 지속적인 커다란 충격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 중인 325명의 안산 단원과 학생이 타고 있었고 그 중 75명만 구조되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국민적 슬픔과 애도 그리고 분노가 있었다. 사고 후 벌어진 안전과 대책에 대한 여러 논란은 우리사회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였다. 해상사고의 특성상 신체적 손상이나 치료보다는 심리적 충격이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회원 역시 정신건강의 전문가로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합뉴스 등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2000년의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에 이은 화재 사고의 생존자 김은진 님의 글의 일부이다.<sup>1)</sup>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사망 소식 뒤에 살아남은 부모들이 견뎌야 했던 처벌은 우울증과 이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배우자를 책망하다, 결국 사망자 부모님 대부분이 이혼 또는 별거를 했고, 조부모님들은 손자, 손녀 사고 후 3년 사이로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꼭 사회가 알아주세요. 오래 전에 발생한 제 사고가 있던 시절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어느 누구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니다. 피해자 가족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꼭 힘이 되어 주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면, 2014년이 흐르고 흘러 2024년이 되어도 꼭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이와 같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우울증, 자살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을 높이고 개인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 영

향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재난적 사고 이후에는 정신건강의 학과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간과되어 왔다.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KNPA)는 사고 직후 재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바로 그 다음주 재난정신건강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인준하였다. 70여 명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활동중이며 세월호 사고 초기 현장에서의 자원봉사를 통한 일반인 및 유가족 상담, 대국민정신건강안내서 발간, 의사용 전문가용 재난정신건강 교육자료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특집에서는 이 재난정신건강위원회가 4월 16일 세월호 사고 후 5월 31일까지 시행하였던 초기 대응을 정리하여 향후 재난정신건강지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본 론

### 초기개입일지

사고 당일 75명의 생존학생은 진도 팽목항에서 구조되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한창수)으로 후송 입원하였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포괄적인 치유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4월 17일 관련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에 김영훈 이사장이 참여하였고,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고영훈, 고려대 안산병원)에 통합재난심리지원단(단장 경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김현수, 명지병원)이 조기에 구성되어 심리지원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안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의료, 사회복지, 심리단체들도 모두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의 이름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안산시내 26곳에 이르는 심리상담소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sup>2)</sup> 국립서울병원(원장 하규섭)의 심리적 외상 관리팀(팀장 심민영)이 1차 투입되어 유가족 지원을 시작하였고 단원고등학교에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이정섭) 소속 전문의들과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 정운선), 그리고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소장 홍현주)에서 개입을 시작하였다. 안산지역 개원의협의회 15명의 개원의도 지원에 참여하였다. 국립춘천병원(원장 최종혁)에서 야간상담을 전담하였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인력을 파견하였다. 한편 진도 팽목항 현장에는 4월 17일 국립나주병원(원장 정효성)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참가하여 정신건강심리지원TF가 구성되어 위기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광주전남지부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국립의료원 등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 파견을 통해 지원하였다. 이후 6월 1일자로 진도심리지원단(단장 윤진상)이 구성되어 잠수사와 유가족상담을 지원하였다.<sup>3)</sup>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재난정신건강위원회(위원장 채정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해국 및 백종우 회원이 푸싱메일과 연구학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조직화하였고 수십 명의 전문의가 짧은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나경세, 이상민 회원과 개원의 정찬승 회원 등이 짧은 시간에 해외 트라우마 대응시스템을 번안하고 국내연구를 통합하여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 논의를 도왔다. 김영훈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자문위원, 8명의 운영위원, 58명의 실행위원이 자원하여 활동하였다.

4월 19~20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주관한 학교개입 전문가 교육에 110명의 전문의가 참석하였다. 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서 안산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현장 사무실과 상담실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4월 26일을 기준으로 상담자원봉사 신청자는 170명이었고 실제 113명이 5월 31일까지 상담을 진행하였다. 단원고에는 개원한 회

원들이 본인 병의원을 문을 닫고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로 하루 10~15명의 소아청소년전문의들이 학생들을 면담하였다. 지역에서도 36명의 생존자가 치료를 받은 제주지역과 인천지역 등 관련진료가 많았던 지역은 지부학회와 광역센터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고 부산지역에서는 전국최초로 재난의료지원단을 창립하였다.

5월 1일자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센터장 하규섭)가 개소하여 안산지역의 심리지원활동을 총괄하게 되었다.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자문위원장(채정호) 및 프로그램개발위원회(간사 석정호)가 참여하여 지원활동을 지속하였다. 유가족상담에 대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요청으로 운영위원과 자원봉사회원이 유가족상담을 지속적으로 매일 지원하였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체계가 구성됨에 따라 6월 4일에 KNPA 회원 연수교육과 총회를 기획하고 5월 31일로 상담자원봉사를 종료하게 되었다. 단원고에서의 자원봉사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 재난정신건강위원회 활동 방향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소위 COPE의 기준에 따라 주요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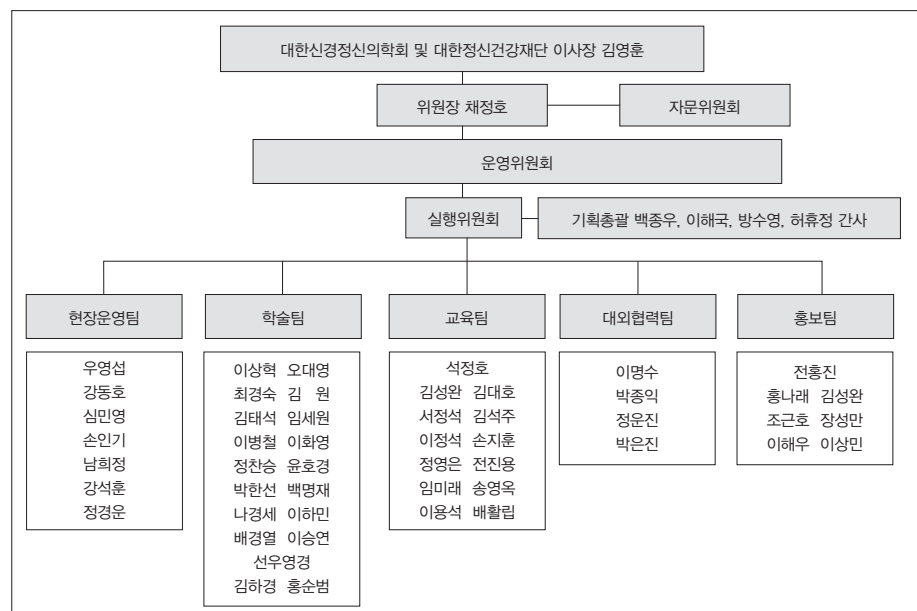
Content : 개입모델 및 지침개발, 교육내용 개발

Outreach : 현장 상담 지원 및 조직화

Public advocacy and networking : 인식개선, 네트워크, 공공 펀딩 등

Excellence : 전문가로서의 수월성에 입각한 최선의 지원

**Fig. 1.** Organization Chart of Disaster & Trauma Mental Health Committee (until 31 May 2014).



##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조직과 활동내용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기획총괄팀, 현장운영팀, 학술팀, 교육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구성하였다(그림 1).

현장운영팀은 매일 당번제로 안산현장을 운영지원활동을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상담을 지원하며 유가족의 경우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12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원봉사상담에 참여하여 유가족, 생존자,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1회 평균 1시간 이상의 상담을 제공하였다. 상담기록은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계하고 보관하였다. 학술 및 교육팀은 이병철 회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의사용 교육자료 3편, 정신보건전문가용 교육자료 2편을 제작하였다. 의사용은 재난 직후(1개월 이내) 개입 모델-급성 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 중심, 재난 이후(1개월 이후) 개입 모델-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중심), 외상관련장애 이외의 정신과적 질환 및 사회적 지지 체계(인적, 물적) 제공을 위한 개입 모델을 제작하였고 정신보건전문가용은 심리 관련 분야 전문가(심리상담가, 사회사업가 등) 초기 심리적 응급 치료, 심리적 회복을 위한 개입 모델을 제작하여 푸싱메일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였다. 홍보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위원회(이사 이동우)와 함께 8편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였고,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는 언론의 취재협조요청을 회원 중 전문가에게 연결하고 학회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4월 28일에는 국민을 위한 정신건강지침으로 '상실과 애도에 대한 정신건강안내서'를 배포하여 무엇보다 이러한 재난에 대한 우울, 불안, 분노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임을 알려 회복을 촉진하고자 노력하였고 질환이 발생한 경우 조기발견과 대처의 중요성을 안내하였다.<sup>3)</sup>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적 치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초기 언론기사 207건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여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전국의 생존자 및 유가족 진료를 담당하는 회원을 위한 안내와 진료지침도 푸싱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대외협력팀은 네트워크와 펀딩을 기획하였다.

### 주요회의

- 1) 4월 17일 세월호 사고 관계부처 대책회의(안산 김영훈 이사장 참여)
- 2) 4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책회의 후 4월 25일 재단 이사회 인준 및 예산 배정
- 3) 4월 25일부터 매일 안산 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 운영위원 현장지원 및 회의참가
- 4) 4월 30일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세월호 지원 관련 회의

- 5) 5월 7일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전체회의
- 6) 5월 17일부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회 참여(채정호 위원장, 석정호 프로그램위원회 간사)
- 7) 5월 21일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전체회의(이후 매월 셋째 주 월례회의 진행)

### 활동내역

- 1) 실행위원 56명 외 총 70명(자문위원 운영위원 포함) 활동
- 2) 안산현장 상담지원 신청 170여 명, 운영위원 당번제로 안산현장 운영지원
- 3)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가족 상담 전담
- 4) 회원 121명 통합재난심리지원단 상담자원봉사 참가 안산시민 130명 상담
- 5) 의사용 교육자료 및 정신건강전문가용 교육자료 5부 개발 및 배포
- 6) 상실과 애도를 위한 정신건강안내서 및 정신건강을 위한 두 번째 안내서 배포
- 7) 학회 보도자료 8건 배포 및 취재협조, 정신건강관련 기사 분석(총 207건)
- 8) 안산트라우마센터 유가족 프로그램 개발(간사 석정호)
- 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대상 안내서 배포(진료시 4건) 및 진료관련 민원 처리
- 10) 복지부 및 국회 관련자료 요청 및 의견 회신(4건)
- 11) 5월 31일로 안산 지역 자원봉사시스템 종료 후 체계변경

### 세월호 관련 보도자료

- 1) 4월 17일 장기적 트라우마 치유체계 수립해야
- 2) 4월 22일 국민과 언론에 드리는 글
- 3) 4월 28일 국민정신건강 안내서 : 상실과 애도에 대한 정신건강안내서
- 4) 4월 2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회 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공동보도자료
- 5) 4월 29일 실종자 환경 가족환경 개선해야
- 6) 5월 12일 트라우마 관련 장기관리체계 제안
- 7) 5월 14일 자살예방관리체계 수립해야
- 8) 5월 18일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두 번째 안내서 : 자살예방 지침

### 모금활동

재난정신의학회금을 KNPA 회원들을 대상으로 44360062원을 모금하였다(2014년 총계).



## 결론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후 5월 31일까지 진행된 초기활동에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봉사자들을 국민적 고통에 함께하고자 정신건강의학의 전문가로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전국각지에서 병원에서 회원들에 의하여 생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되었다. 안산 현장에서의 책임있는 심리지원활동은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의 14일간의 활동과 이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가 학회가 주축이 된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전문가에 부여된 역할을 고민하였고 현장에서의 상담에 대한 지원 및 조직화, 그리고 교육 및 학술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 언론 및 인식개선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삼풍백화점사고, 대구지하철사고, 부산마리나리조트붕괴사고 등 여러 재난에 회원들의 개입이 있어 왔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체계를 갖추고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열정적으로 지원활동을 벌인 것은 유례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다. 하지만 이와함께 재난정신건강서비스의 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성도 사회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은 분명하다.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없이, 미리 교육받고 인증받은 전문가 없이, 무엇보다 재난정신건강서비스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없이 자원봉사자만 진행되는 정신건강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법적 권한과 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지원하고 제반 편의를 지원하는 미국의 재난정신의학기구(Disaster Psychiatry Organization)나 일본의 재난정신의료지원팀(Disaster Psychiatric Assistance Team)의 체계를 참고로 재난정신건강지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내에서 매우 시급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세월호 사고 후 자원봉사에 참여한 당시의 분위기에서 정신의학의 전문가들이 소중한 재능을 기부하여 국민적 고통에 함께하려 한 과정의 의미는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활동이 국내 재난정신건강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후의 활동과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제언 등은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중심 단어 :** 세월호 사고 · 재난정신건강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 Acknowledgments

소중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모든 학회 회원님들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회의 지원활동을 총괄하신 김영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님과 안산과 진도 현장에서 책임을 맡아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총괄하셨던 윤진상, 하구섭, 김현수, 한창수, 고영훈, 정운선, 홍현주 회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1) DongA Ilbo [homepage on the Internet]. Seoul: DongA Ilbo [cited 2014 Dec 14]. Available from: <http://news.donga.com/3/all/20140422/62945165/1>. 2014.4.22.
- 2) Gyeonggi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Ansan, early psychological support related to Sewol ferry accident for 14 days. Official report of Gyeonggi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Suwon: Gyeonggi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2014.
- 3)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ase study about Jindo Sewol Ferry Accident for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ental Health Servic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4.
- 4) Korean Trauma and Disaster Mental Health Committee (KDMHC). 100 days after sewol Ferry Accident. The official report of KDMHC. Seoul: KDMHC;2014.
- 5) Korea Disaster & Trauma Mental Health Committee. Mental Health Guideline for Loss and Grief. Korea Disaster Mental Health Committee. Seoul: Korea Disaster & Trauma Mental Health Committee;2014.